

추석 선물세트, 10만원 이상 이거나 1만원 이하

예약 판매, 작년보다 고가 17%·저가 27% 늘어 양극화 5만~10만원대 1.7% 증가...9900원 초저가 세트 인기

올 추석 선물세트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고가와 저가는 큰 인기를 끄는 반면 중간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을 맞아 부지는 고가 선물을 선호하지만 서민은 저가 선물 구매하는 것이다.

20일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 사전예약판매를 시행한 지난달 17일부터 한달간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이상 고가와 1만원 이하 저가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1%, 27.4% 뛰었다.

이와는 달리 5만원 이하는 14.1%, 5만~10만원 선물세트는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저가형 선물세트로는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미용·생활용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가형 선물세트로는 5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상품들이 내놓자마자 동나고 있다.

한우 선물세트 중 최고가인 황성한우 1++등급 구이용세트(55만원/3kg)는 150세트 한정물량을 준비해 본판매를 하자마자 모두 팔렸다. 올해 처음 선보인 피코크 제주흑한우 세트(55만원/4kg)도 이미 150세트가 팔렸다.

통상 5만~7만원 선인 육포 선물세트 가운데 올

해 13만8000원에 출시된 황성한우육포(13만8000원/500g)도 준비한 100세트가 모두 사전예약 판매 기간에 완판됐다.

사과·배 선물세트는 평균 상품가격인 5만7600원인데 10만원 선인 피코크 사과·배 세트는 준비 물량이 거의 다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무려 748만원인 프랑스 1등급 05 빈티지 와인을 5병 모은 선물세트가 와인 애호가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준비한 6세트 중 5세트가 이미 팔렸다.

통조림 선물세트는 평균이 3만3000원 선인데 그보다 60% 비싼 피코크 흑돼지 통조림 선물세트는 모두 판매됐다.

아울러 초저가인 9900원 생활 선물세트도 판매되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인기를 끈 양말선물세트도 지난해 추석보다 36.8% 매출이 뛰었다.

최현환 이마트 마케팅팀장은 “무엇보다 9천900원대 선물세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중간 가격대 상품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소비의 양극화가 선물세트 구매에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일 광주 이마트 상무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진 청림농원의 버섯세트들이 매장 관계자가 들어 보이고 있다. <이마트 제공>

주간 증시 포커스

美 금리 동결에 ‘안도 랠리’

낙폭 과대주 위주 상승 기대

지난주(14일~18일) 국제 신용평가사 S&P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15일 국제신용평가사 Standard & Poor's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1단계 올렸다.

16일 발표된 유로존 7월 무역 흑자 규모는 317억 유로로 전월 212억유로, 예상치 230억유로로 큰 폭으로 상회했다. 유럽 무역흑자 규모는 2004년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중국 증시가 한 때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저가 인상에 따른 매수와 중국 당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재차 반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때 달러 금리 상승을 예상해 환율이 꾸준히 상승했고 외국인 이탈에 따른 국내 증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지난 18일 새벽 3시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인 30일간의 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했다.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보이고 있고,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상승했다. 상승기에 증시를 주도하던 바이오 화장품 위주의 낙폭 과대 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번 주(21일~25일)는 달러 약세 지속과 이머징 통화 안정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호재들이 주가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지표 하락세와 중국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주가에 대한 상승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9월 FOMC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이머징 마켓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 지표들의 움직임은 달러약세, 원화강세, 유가 상승, 소재·산업재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16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꾸준히 지표변화를 모니터링 하며 대응해야 한다.

최근 FOMC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달러가 약세 전환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지표들의 선반영이 시 작된 모습이다. 당분간 통화적 요인에 따른 유가 상승, 이머징 통화 약세 진정기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0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관건은 24일 예정돼 있는 중국 차이신 PMI 발표, 국경절 수요 확대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며 전월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기준선(50)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머징 마켓 제조업 둔화에 따른 우려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응전략으로는 달러 약세와 유가 상승에 따른 소재·산업재의 기술적 반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관련 자금도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조업 둔화 우려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추세 상승보다는 기존 장기 박스권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유한다.



윤자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알찬 추석 명절’ 스마트 앱에 다 있다

차례상 차리는 법부터 병원 정보·민속놀이까지 스마트 폰이 척척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면 명절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지낼 수 있다. 이동통신사의 각종 서비스 할인 행사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제사의 정석’이라는 무료 앱은 명절 차례상을 올바르게 차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전통 풍습의 유래와 의미, 어떤 음식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제공한다.

‘명절 생활 백서’는 가계도와 춘수, 호칭 정보를 담은 앱이다. 오랜만에 만난 먼 친척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릴 때 쓸모 있다. 퀴즈도 풀 수 있어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좋다.

‘병원 114’ 앱은 전국 8만여개의 병원과 약국 데이터를 제공한다. 연휴 기간 낯선 곳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처 응급실이나 약국을 검색해 문을 열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원조 옷놀이’, ‘제기차기’, ‘투호 Lite’ 등의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SK텔레콤의 ‘T맵’, KT의 ‘올레 내비’, LG유플러스의 ‘U+ 내비 리얼’ 등 각 이동통신사의 앱은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길 안내를 제공해 귀향길에 유용하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곳곳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전남지역 곳곳에서 알뜰 직거래장터도 마련돼 각 지역의 특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운영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광주시 동구 KT광주정보통신센터앞 광장에서 오는 22~24일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직거래장터에서는 추석명절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배, 밤, 대추 등 60여 품목과 한우

등 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강남경 본부장은 “생산자가 보충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전남대표농축산물을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남지역 각 시군농협에서도 추석명절 전까지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박에 20만 6200원

호텔 숙박료 가장 비싼 도시 서귀포

2위 경주... 서울 7위 머물러

전국 평균 작년비 13% 하락

국내 호텔 숙박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귀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전국 주요 10대 도시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20일 세계적 호텔예약사이트인 호텔스닷컴(Hotels.com)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0대 도시의 1~5성급 호텔 하루 숙박요금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는 20만6204원으로 최고가였다. 이는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서귀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0만원대였다.

2위인 경북 경주는 13만8775원으로, 서귀포와 큰 격차가 있었다.

창원이 13만5249원으로 뒤를 따랐고, 대구(12만9946원), 인천(12만7590원), 부산(12만3254원) 등의 순이다.

서울은 12만1854원으로 7위에 머물렀고, 제주(12만1496원)와 경기 수원(11만9052원)이 8위와 9위를 차지했다.

강원 속초가 10만375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들 전국 10대 도시의 호텔 평균 숙박요금은 13만2717.1원으로 작년동기(15만2609.8원)보다 13% 하락했다.

인천의 호텔 숙박요금만이 9% 상승했을 뿐 서귀포를 비롯, 9개 도시가 일제히 떨어졌다.

이는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호텔업계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 여행객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방문한 국내 도시는 서울로 조사됐다.

부산과 인천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고 제주, 서귀포, 수원, 대구, 경주, 경기 고양, 대전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문화복합시설 · 펜션 · 식당 · 전원주택단지 **최고 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주인직매 H.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2441평 건882평 임6726평
- 낙찰 - 14억 9500만원(7명 응찰/2등 - 14억 9100만원)
등기비 - 7000만원
명도비 - 2000만원(5명)
기초공사 - 3000만원(옹벽공사/벌목 등)
기타 - 1500만원(대청소 등)
총 - 16억 3000만원
- 급매 - 17억 5000만원(조정 없음)
대출 - 12억 5000만원(2.1%, 월 219만원)
- 실제 인수금액 - 5억원
- 조건 - 9월 23일까지